

동부출장소 → 동부지역본부 격상...정무부지사 부활 소통 강화

전남도, 본청 10국 49과→9국 47과로 조직개편

일자리·풍력산업·농업생산비 절감 전남 팀 신설

전라도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동부지역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직 전반에 대해 10년 만에 대수술에 나선 것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수 국가산단 등 동부권 환경 수위 및 환경개선 증가에 따라 현재 4급인 동부출장소를 3급 '동부지역본부'로 격상하고, 환경 및 산림 보전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동부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수요와 기능을 일치시켰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일자리 및 투자 유치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투자와 연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선, 화학 등 주력산업의 새 활로 모색을 위해 경제과학국 내에 전남 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정책실과 투자정책국은 없어진다.

또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이자 신성장산업인 사회적 기업 및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팀을 신설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은 과학화와 생산비 절감에 있다는 점을 반영해 농업생산비 절감 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도민 소통기능과 도정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개편해 중앙 부처 및 국회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도의회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장구를 마련했다. 종합민원실을 도민소통실로 개편하고, 농어업인, 기업인 등 직능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행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지원 기능도 마련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함으로써 여성분야 정책개발 전문성을 강화했고, 100원 택시제, 버스(중)공영제 등 도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전남조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남조직도 신설된다.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공무원교육원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하고, 점점 더 수요가 늘고 중요도가 커지는 축산물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위생사업소 내에 위생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조직은 본청의 경우 10국49과에서 9국47과로 개편, 1국2과를 줄이고, 줄어든 기구는 동부지역본부 등에 이관했으며, 총 정원은 기존의 3989명에서 본청 10명, 소방인력 61명 등 총 71명이 늘어난 4060명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3일 울촌제1산단 내 ㈜현대제철순천공장을 방문해 직원들로부터 업체현황 등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양만권으로 달려간 이낙연 지사 첫 외부 공식일정...“세풍산단 개발 적극 지원”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3일 취임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동부권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풍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회봉 광양경제자유구역 청장의 안내로 현장을 둘러보고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신규 SPC 설립,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세풍리 일원 3.0km에 사업비 5200여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세풍산단에는 1차

급속, 금속가공 업종 및 기능성화학소재, 바이오패키징 소재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자 제지정 문제 등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체됐으나 최근 사업 시행자 대체 지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광양만권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산업의 성장 한계로 세풍산단은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로의 중

추기지가 될 것이므로 산단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약사항인 포스코~여수산단 해저터널 구축 추진에 주민, 시민단체와 협력해 지혜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촌1산단 내 현대제철(주) 기업현장을 방문한 이 지사는 정순천 전무사와 면담한 뒤 “최근 국내 철강산업이 중국 저가·저품질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어려

움에 직면해 있어 안타깝다”며 “술 연구 개발로 생산성 향상, 제품 고급화·다양화 등 기업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후 광양만권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일주일에 한 번 동부권에서 근무하겠다는 본인의 공약을 실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종교칼럼’ 필진 바꿉니다

마음의 길잡이가 될 광주일보 '종교칼럼'이 7월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성직자들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위도가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선 스님 김성덕 목사 김연준 신부 서문성 교수

- ◇일선(장흥 보림사 주지)
 - ▲불교신문 논설위원 ▲금전선원 선원장
- ◇김성덕(화정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신학대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 영암교회 부목사
- ◇김연준(소록도성당 주임신부)
 - ▲소록도성당 보좌신부 ▲윤남동성당 주임신부
- ◇서문성(원불교 산수교당 주임교무)
 - ▲원불교 영산선원 졸업 ▲원불교 중앙 총부 교화훈련부

光州日報社

3년만에 빚 1470억 늘어

전남도, 이자만 300억...재정 건전성 회복 시급

전남도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보전, F1 사업비, 지방도 정비 등으로 지방채무가 3년 만에 1470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자만 300억원, 원금 포함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남도의회에 '2013 전남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한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재원보전 1801억원, 지방도 정비 및 국지도 건설 1460억원, F1 경주장 건설 1357억원, 재해복구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45억원 등 6660억원이다. 지난 2011년 7677억원, 2012년 7512억원에 비

하면 줄었지만, 2010년 5190억원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22개 시·군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까지 포함하면 채무액은 1조683억5000만원으로, 채권액(1조3652억8200만원)에 근접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지난 2012년부터 1119억원을 갚았으며, 올해 130억원을 상환하고 금리가 4.85%에 이르는 지역개발자금을 차환(기존 채권을 새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하면서 이자 부담을 낮췄다.

도 관계자는 “원리금의 규모가 커 낮은 금리의 채권으로 바꿔나가면서 더 이상 채무를 늘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 지자체 재정 '최악'

재정자립도 17.4%...22곳중 15곳 인건비도 못 쥐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는 등 지방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

3일 전남도가 공개한 2014년 자치단체 재정공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22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17.4%로 지난해 21.7%보다 4.3%가 하락했다. 지난 2009년 19.4%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20%를 밑돌게 됐다.

전남도는 13.8%, 22개 시·군은 16.7%,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시 평균은 22.1%, 나머지 17개 군 평균은 8.0%에 불과하다.

특히 22개 시·군 중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무려 15곳으로, 지난해 11곳에서 4곳이 늘었다. 인건비를 충당하는 곳은 시 5곳과 담양도 화순 등 7곳에 불과했다.

17개 군의 자체수입은 모두 4191억원이지만 인건비는 6091억원에 달해 2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완도군의 경우 자체수입은 168억원에 불과했으나 공무원 인건비는 400억원으로 2배 이상을 넘어섰다. 일선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시 지역은 광양시로 30.7%, 군 지역은 화순군으로 19.2%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데스크,상담)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보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임동 방면
◀ 삼우지구 방면

밝은광주안과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금리는 낮게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조합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2014년도 영광군항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항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항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교생 ~ 대학생
 - 단, 2013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 총 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 (중학생 0명, 고교생 00명, 대학생 0명)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에 한함)
- 선발일정**
 - 서류접수 : 2014. 7. 7(월) ~ 7월 31일(목)
 - 최종선정 : 2014. 8월경 발표 (2014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14.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 광주, 동구 남동 45번지 2층 시무총장 강 대 의
 - www.edaynews.com
 -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 yug42@naver.com, 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무촉 별도 양식
-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건립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단, 영광군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주시민가족은 항우장학회 사무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